

C7006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D911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중류형	최초설정일	2016.05.02
운용기간	2018.04.01 ~ 2018.06.30	종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종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베스트국공채 재간접형	자산 총액 (A)	763	746	-2.20
	부채 총액 (B)	0	0	-3.23
	순자산총액 (C=A-B)	763	746	-2.2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762	740	-2.92
	기준가격주 (E=C/D×100)	1,000.76	1,008.25	0.7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분기 채권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살아나며 크게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국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로 전분기 대비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대외 경기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한 유가 급등과 매파적 FOMC로 인해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하였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신흥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리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국 고공지표 호조와 6월 FOMC 회의에서의 점도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안전 자산 선호로 약세폭을 일부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의 경우 분기초 글로벌 무역 갈등의 국내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내 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증심으로 국내 채권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완전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단기 현물 채권을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로 인해 장기물 또한 외국인의 10선 매수 등을 포함해 견조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한편 분기말 기재부가 실시한 국고 50년물 입찰이 초강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국고 20년물과 30년물 입찰이 소외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 동안 국고 3년, 5년, 10년, 20년 금리는 각각 전분기 대비 -9.5bp, -7.4bp, -6.7bp, -8bp 변동되어, 2.122%, 2.351%, 2.555%, 2.555%로 2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국고채 금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리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BM 대비 보수적인 수준의 듀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좋은 국고 지표 5년과 수급여건이 우호적이었던 단기 동안채를 보유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3분기 채권시장은 글로벌 무역 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과도한 커브플래팅에 대한 경계감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의구심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의 경우 미국이 견조한 경제 개선을 보였으나 최근 선행지수가 하락하며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지역들의 경제 회복이 뚜렷하지 않아 채권 약세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 갈등과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3분기에도 채권 강세 요인입니다. 다만 점도표 상향을 비롯한 매파적인 FOMC 스탠스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강세 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6월 소비자 물가가 1% 중반에 머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가 반전하면서 분기 후반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통화정책 완화의 축소에 대한 의견이 보이나 대내외 통화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용 지표를 비롯한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의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도 재정거래 유인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발행량이 감소한 가운데 보험사도 지속적으로 장기채를 매수하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등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국고 50년물 강세로 인해 초장기물 커브가 역전된 점은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75	0.98	0.69	0.4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8)	(-0.32)	(-0.46)	(-0.69)
비교지수(벤치마크)	0.93	1.30	1.15	1.15

※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국공채10년이하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46	0.08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69)	(0.51)	-	-
비교지수(벤치마크)	1.15	-0.43	0.00	0.00

※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국공채10년이하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2	0	0	0	0	0	0	-1	1
당기	0	0	0	6	0	0	0	0	0	0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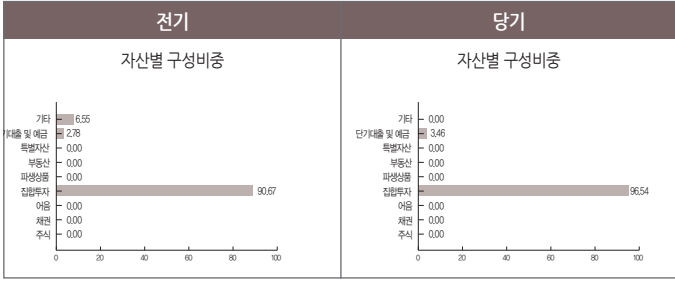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KRW (1.00)	0 (0.00)	0 (0.00)	0 (0.00)	720 (96.54)	0 (0.00)	0 (0.00)	0 (0.00)	0 (0.00)	26 (3.46)	0 (0.00)	746 (100.00)
합계	0	0	0	720	0	0	0	0	26	0	746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 (채권)CF	96.54	6		
2	단기	3.46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최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 (채권)CF	채권형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717	720	대한민국	KRW	96.5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02	26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사장	51	76	2,265,935	-	-	2111000044
차인식	차장	50	76	2,265,935	-	-	2118000653
이하경	과장	34	76	2,265,935	-	-	211800065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1.01.15 ~ 현재	이현구
2018.05.29 ~ 현재	차인식
2018.05.29 ~ 현재	이하경
2018.01.15 ~ 2018.05.28	정우진
2009.02.04 ~ 2018.01.12	남정은
2012.11.05 ~ 2016.04.22	오인철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1	0.09	1	0.09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10	1	0.1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선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389	0	0.389
당기	0.3877	0	0.3877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체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